

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우선지급 한다...고객 안내 강화

✎ 안다정 기자 | ⓒ 승인 2023.10.27 10:43



(사진=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 대상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간치료사 여부를 가리지 않고 우선 지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약속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및 부지급이 늘어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무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중단 이슈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앞서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지만, 보험금 지급률은 99%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바 있다. 다만 발달지연 아동 부모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대해상과의 좌담회를 열고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가 치료한 최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후 추가 청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치료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다정 기자 yieldabc@bloter.net